

▶ 종목 정보

상장 예정일	미정
기업 가치	8,520억 달러(26년 4월)
매출액(ARR 기준)	250억 달러(26년 2월)
국가	US
산업	Software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오픈AI (OpenAI, 미국 비상장)

에이전틱 AI로의 전환, Codex가 보여주는 증거들

- 오픈AI는 신규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Codex 기반의 에이전틱 AI 전환 강조
- Codex는 개발자 생산성 도구를 넘어 지식 노동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변화 중
- 오픈AI 사내 트렌드는 비용, 문화 내부 마찰이 낮은 선행 사용자로서 방향성 제시

WHAT'S THE STORY?

에이전틱 AI로의 전환: 오픈AI는 신규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Codex로 대표되는 에이전틱 AI가 지식 노동의 단위를 단일 상호작용에서 장기 작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챗GPT로 대표되는 챗 봇과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짧고 독립적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고, 모델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에이전트는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도구 호출을 조율하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중간 결과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해결책을 개선한다. 현 시점 AI 활용의 중심은 단순 질의응답에서 업무의 위임과 실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픈AI 내부 사용 데이터의 시사점: 이번 연구 분석 대상은 오픈AI 내부 사용자, 기업 고객, 개인 사용자다. 특히 오픈AI 내부 데이터는 일반적인 기업의 평균적 도입 속도 보다는 AI 활용에 따른 비용, 문화, 사용 경험 측면의 마찰이 낮은 선행 사용자군의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픈AI 내부는 AI 사용량 제한이 사실상 없고, 모델과 활용 방식에 대한 내부 지식 공유도 활발한 환경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도입 마찰이 낮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업무 방식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dex 공개 초기만 해도 오픈AI 내부에서도 여전히 챗GPT가 기본적인 업무용 AI 도구였다. '25년 8월까지 평균 오픈AI 직원의 전체 사용 토큰 중 Codex 비중은 10% 미만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Codex 성능과 제품 기능이 개선되면서 사용 패턴은 빠르게 변화했다. '26년 6월 기준 오픈AI 내부 Codex 활성 사용자 비중은 97.9%, 전체 아웃풋 토큰 중 Codex 비중은 99.8%까지 상승했다.

변화는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먼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는 법무, 재무, 채용 등 비기술 부서에서도 Codex가 주력 AI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당 부서는 '26년 4월경부터 Codex 사용량이 챗GPT를 상회했으며, 현재 부서별 Codex 출력 토큰 비중은 엔지니어링 99%, 재무 91%, 채용 89%, 법무 88%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Codex가 단순 코딩 보조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기술 인력도 자동화, 데이터 변환, 도구 제작, 디버깅, 구조화된 분석 등 과거 기술 인력의 지원이 필요했던 업무를 Codex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업무 경계를 넘는 비용을 낮추고,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인접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비개발자의 높은 확산 속도: '25년 8월 이후 비개발자 Codex 사용자는 개인 사용자에서 137배, 기업 고객에서 189배, 오픈시 내부에서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발자 사용자는 각각 61배, 85배, 4배 증가했다. 즉 Codex의 초기 확산은 개발자 중심이었지만, 최근 성장의 핵심은 비개발자와 일반 지식노동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고객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기업 고객의 Codex 활성 사용자 비중은 17.3%로 아직 낮지만, 전체 출력 토큰 중 Codex 비중은 63.3%에 달한다. 이는 침투율은 초기 단계지만, 한 번 도입한 사용자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Codex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사용자도 활성 사용자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출력 토큰 비중은 16.5%로 더 높게 나타난다.

장기 작업 위임 트렌드: 에이전틱 AI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작업 위임이다. Codex 요청의 약 4분의 1은 사람이 수행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26년 5월 개인 사용자 기준 80.6%가 30분 이상, 70.2%가 1시간 이상, 42.4%가 4시간 이상, 25.6%가 8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을 최소 한 번 이상 Codex에 요청했다. 이는 사용자가 AI를 단순 답변 생성 도구가 아니라, 장시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형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에이전트 업무의 시스템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에이전트 업무의 시스템화다. Codex에서는 스킬과 플러그인을 통해 반복 업무에 필요한 지침, 소프트웨어, 외부 도구 연동 등을 재사용할 수 있다. '26년 6월 11일 기준 활성 Codex 사용자 중 스킬 사용 비중은 개인 사용자 25.7%, 기업 고객 30.4%, 오픈시 내부 96.2%에 달했다. 전체 활성 Codex 사용자 중 스킬 사용 비중도 '26년 3월 5.4%에서 6월 26.6%로 상승했다. 에이전트 활용은 일회성 요청을 넘어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우로 정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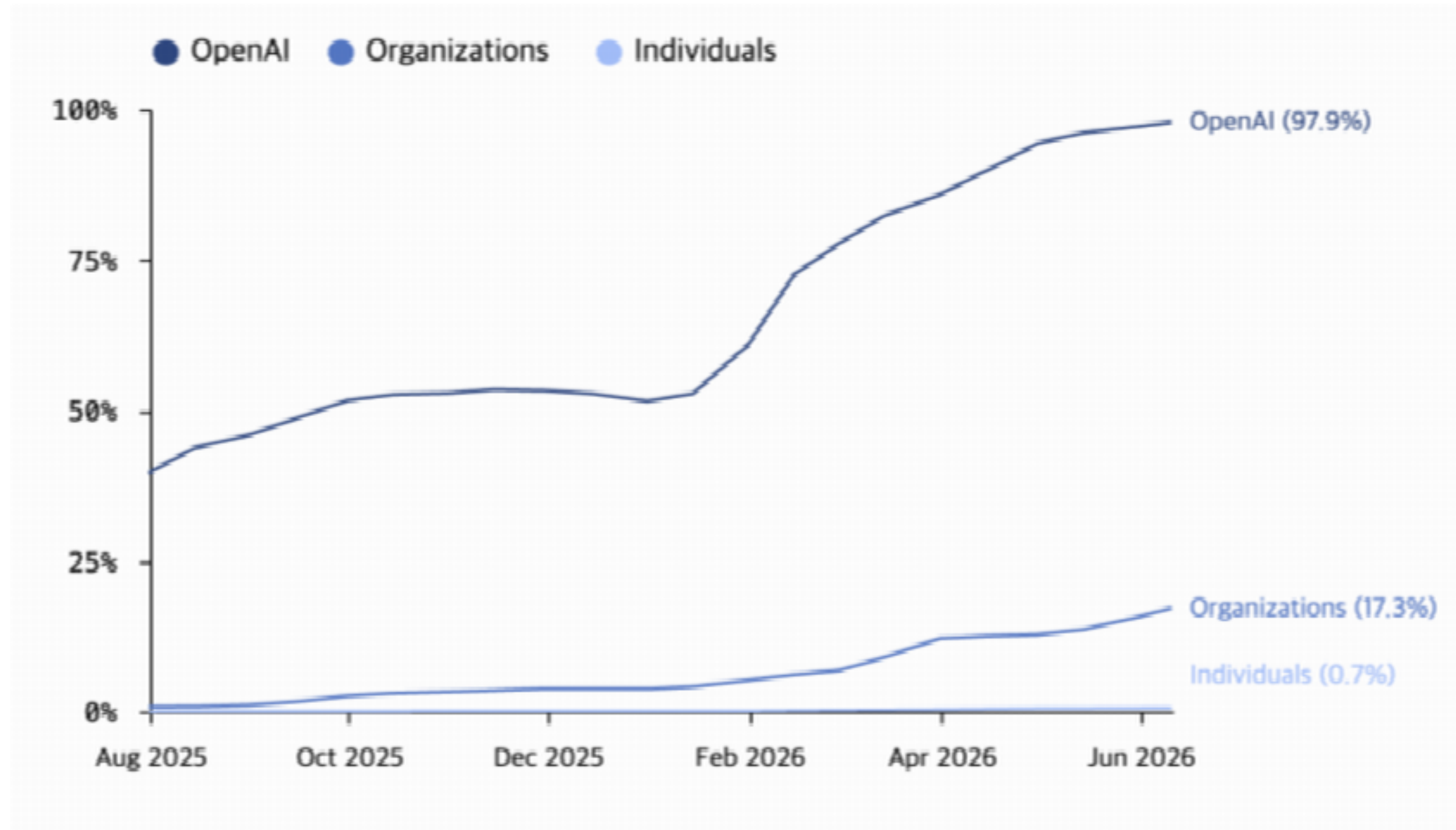
병렬 에이전트 운영 확산: '26년 6월 11일 기준, 개인 사용자와 기업 고객은 각각 63.9%, 67.4%가 동시 실행을 사용하지 않았지만(=단일 워크플로우), 반대로 오픈시 내부 사용자는 단일 워크플로우만 사용한 비중이 10.7%에 그쳤다. 또한 오픈시 내부 사용자의 28.6%는 같은 기간 최소 한 번 이상 5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관리했다. 또한 오픈시 내부 활성 사용자 기준 상위 1%는 하루 60시간이 넘는 에이전트 작업을 병렬로 수행하고 있다.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답변을 받는 방식이나 에이전트가 단순 보조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여러 에이전트에게 동시에 업무를 맡기고, 감독하며 결과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업무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이전틱 AI 확산의 필요 조건: 다만 에이전틱 AI의 확산은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개인, 기업 고객, 오픈시 내부 사용자 간 활용 강도는 크게 달랐다. 이는 에이전틱 AI의 가치가 파일과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성,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 관리자의 태도, 검토 프로세스 등 조직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의미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까지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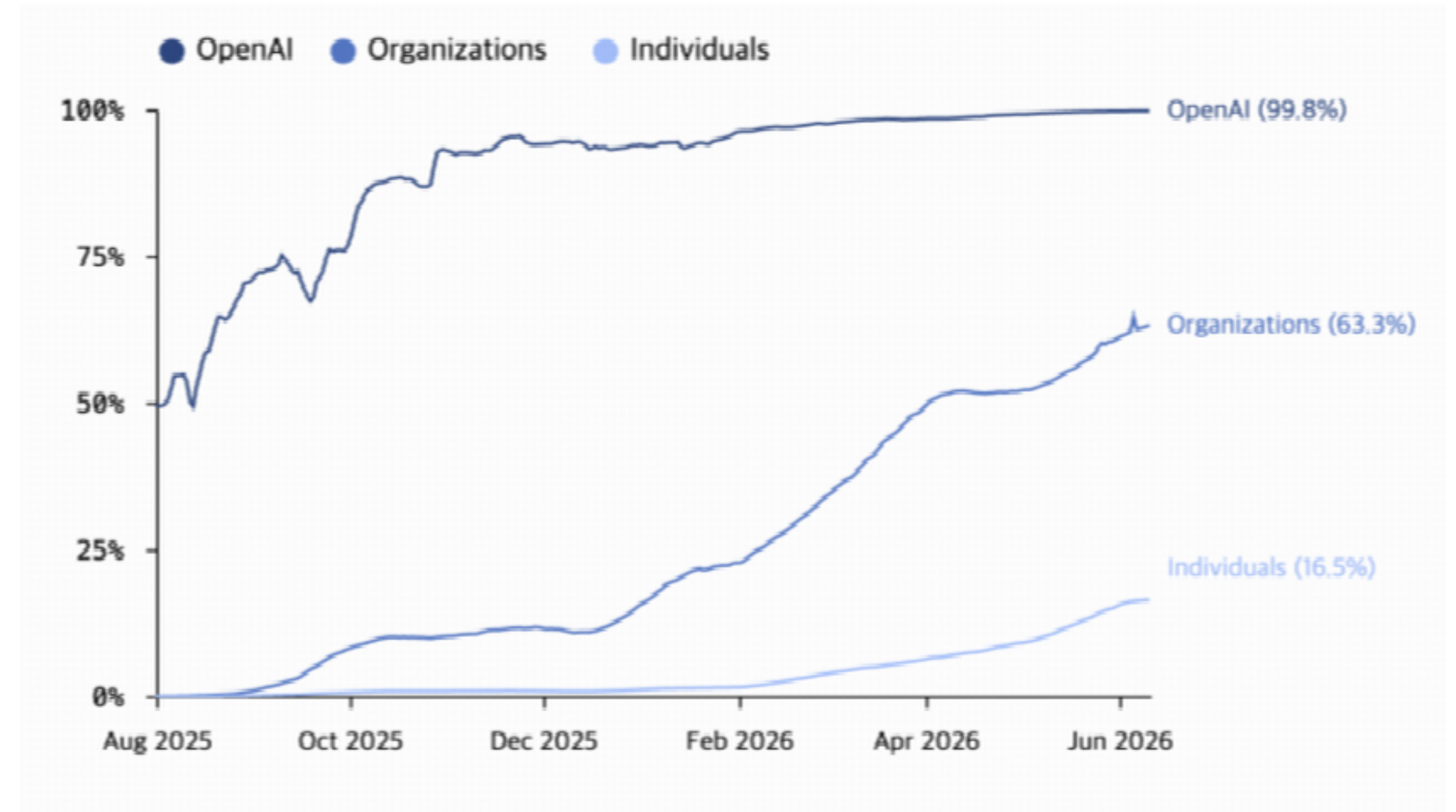
Codex가 바꾸는 지식노동의 인터페이스: 결론적으로 이번 오픈시 연구의 핵심은 Codex가 단순한 개발자 생산성 도구를 넘어 지식노동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은 짧은 대화와 답변 생성에서, 장기 작업을 위임하고 병렬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워크플로우로 이동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AI 수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AI 수요는 단순 사용자나 시트 수뿐 아니라 작업량, 실행 시간, 토큰 사용량, 에이전트 병렬 처리 규모에도 연동될 것이다. 또한 비개발자 업무까지 에이전트 활용이 확산되며 에이전틱 AI의 침투 가능 시장(TAM)도 개발자 도구를 넘어 일반 지식노동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활성 유저에서 Codex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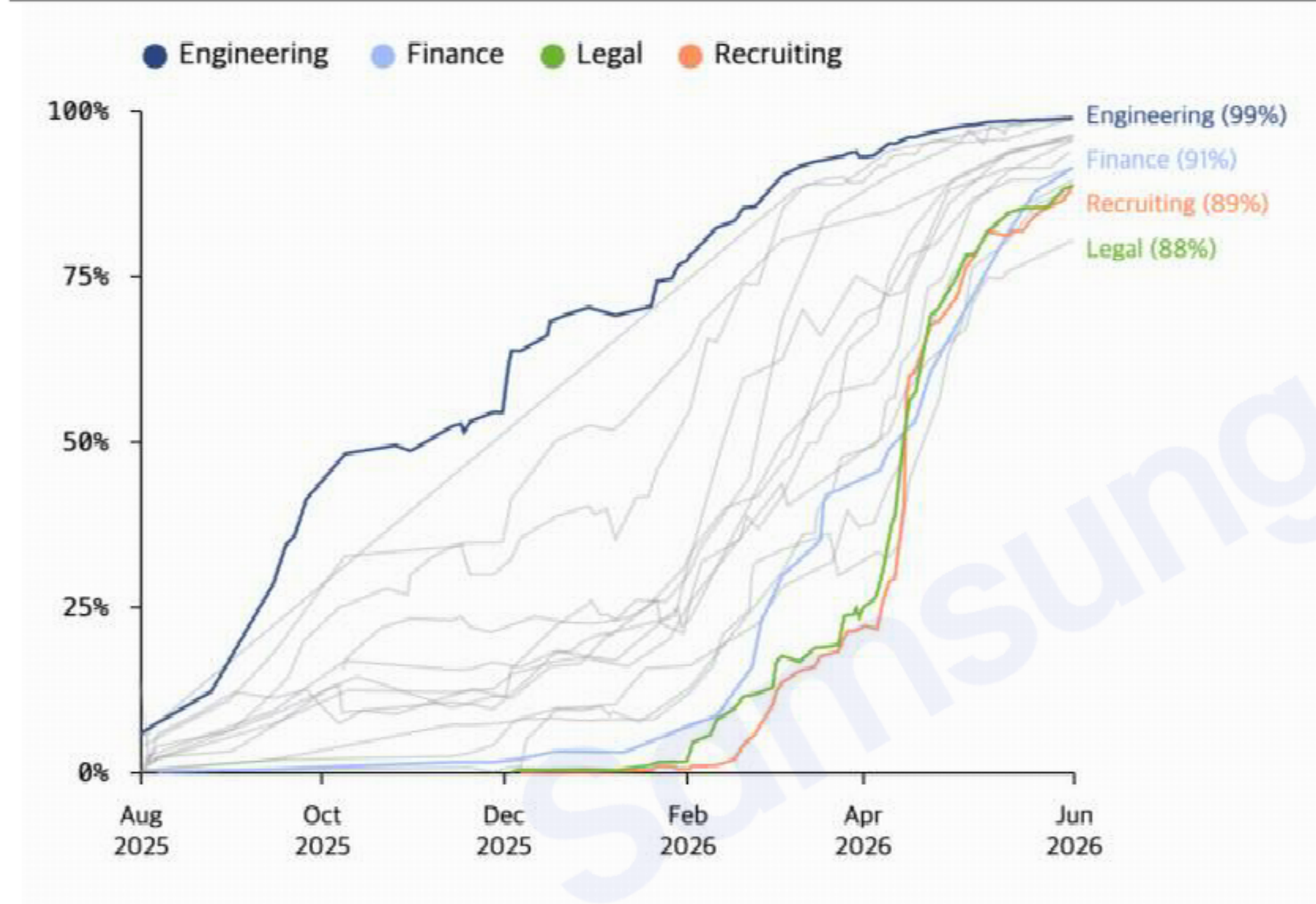
자료: OpenAI

아웃풋 토큰에서 Codex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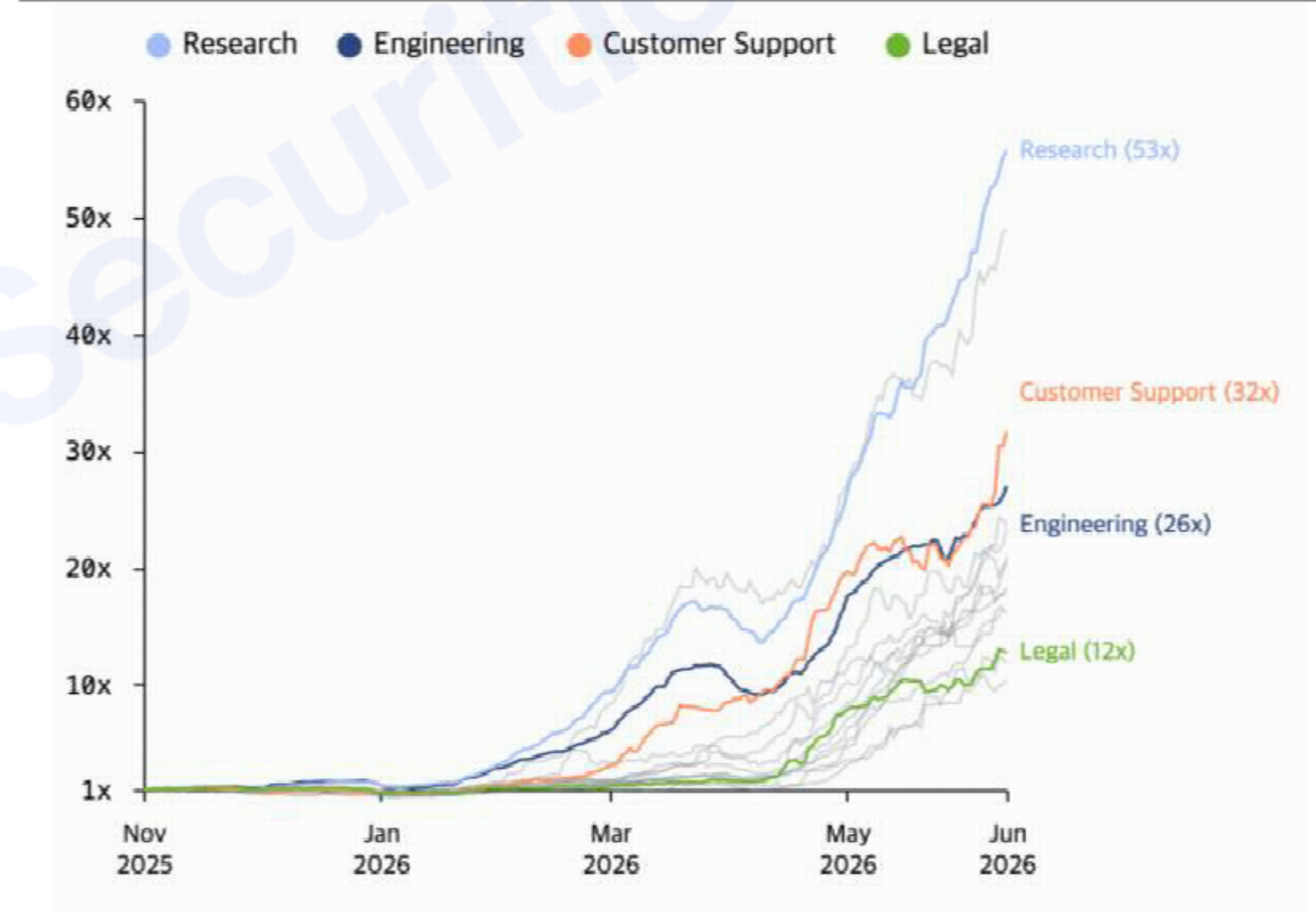
자료: OpenAI

오픈AI 내부 부문별 Codex 활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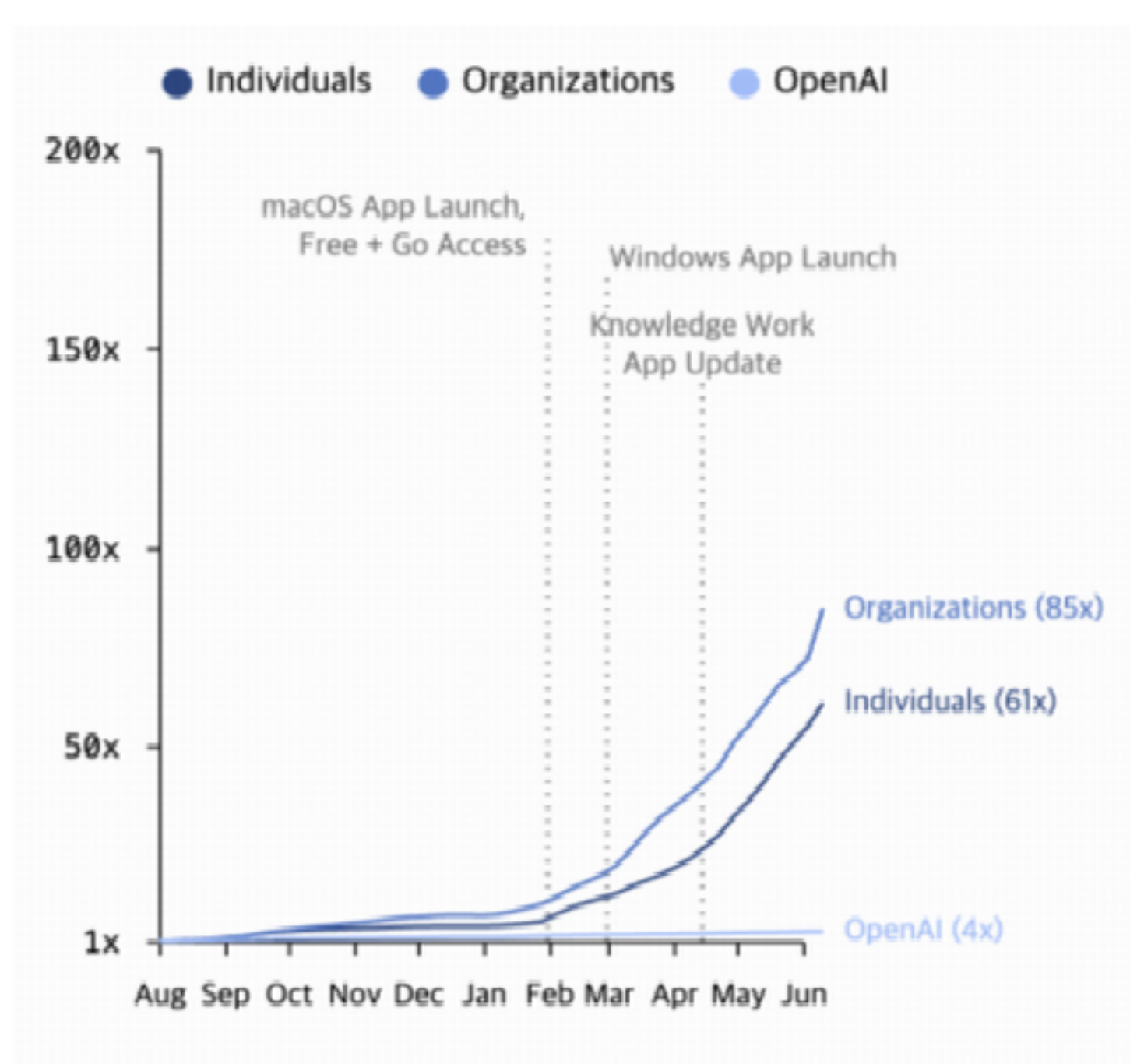
자료: OpenAI

부문별 아웃풋 토큰 상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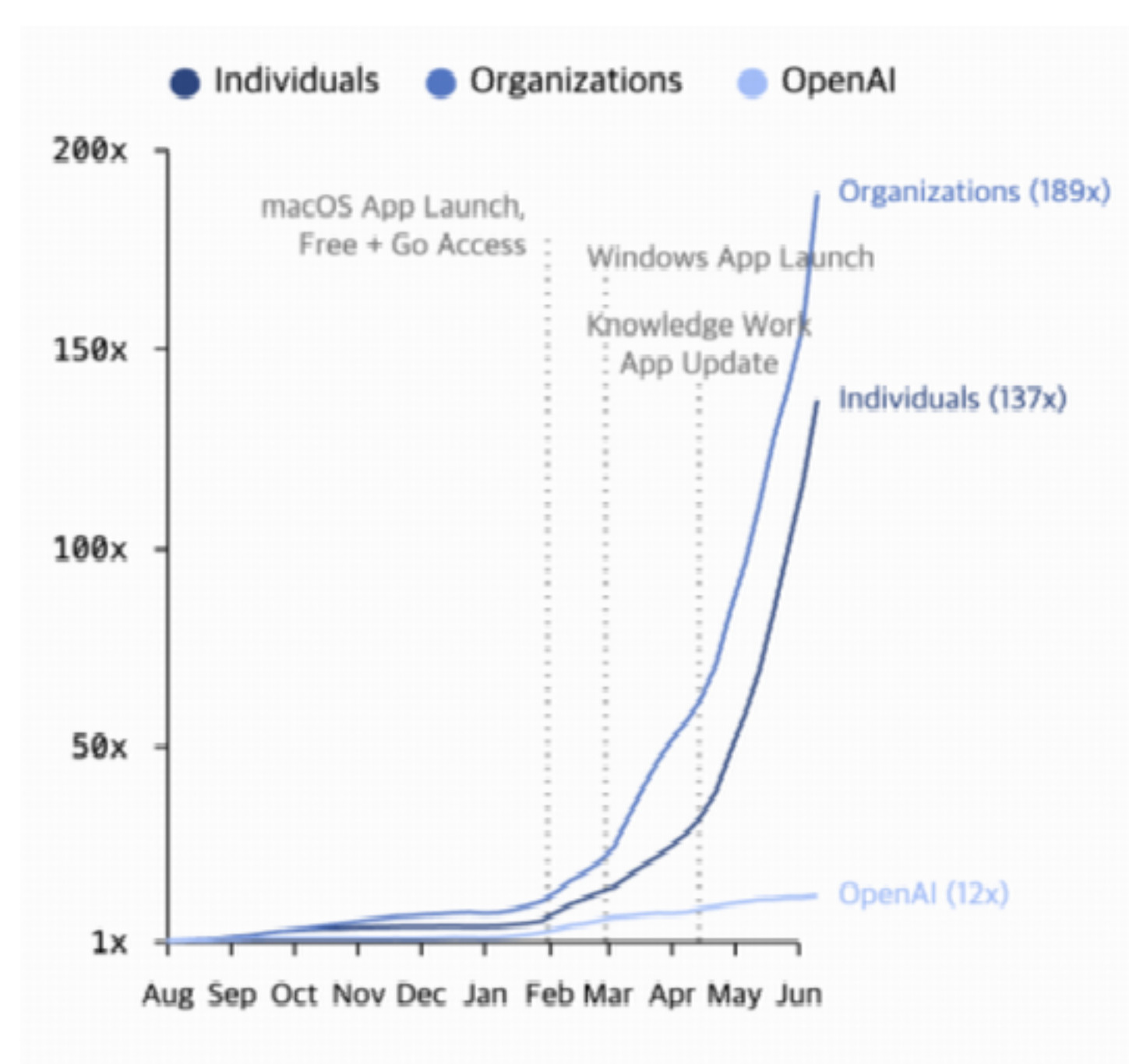
자료: OpenAI

Codex의 개발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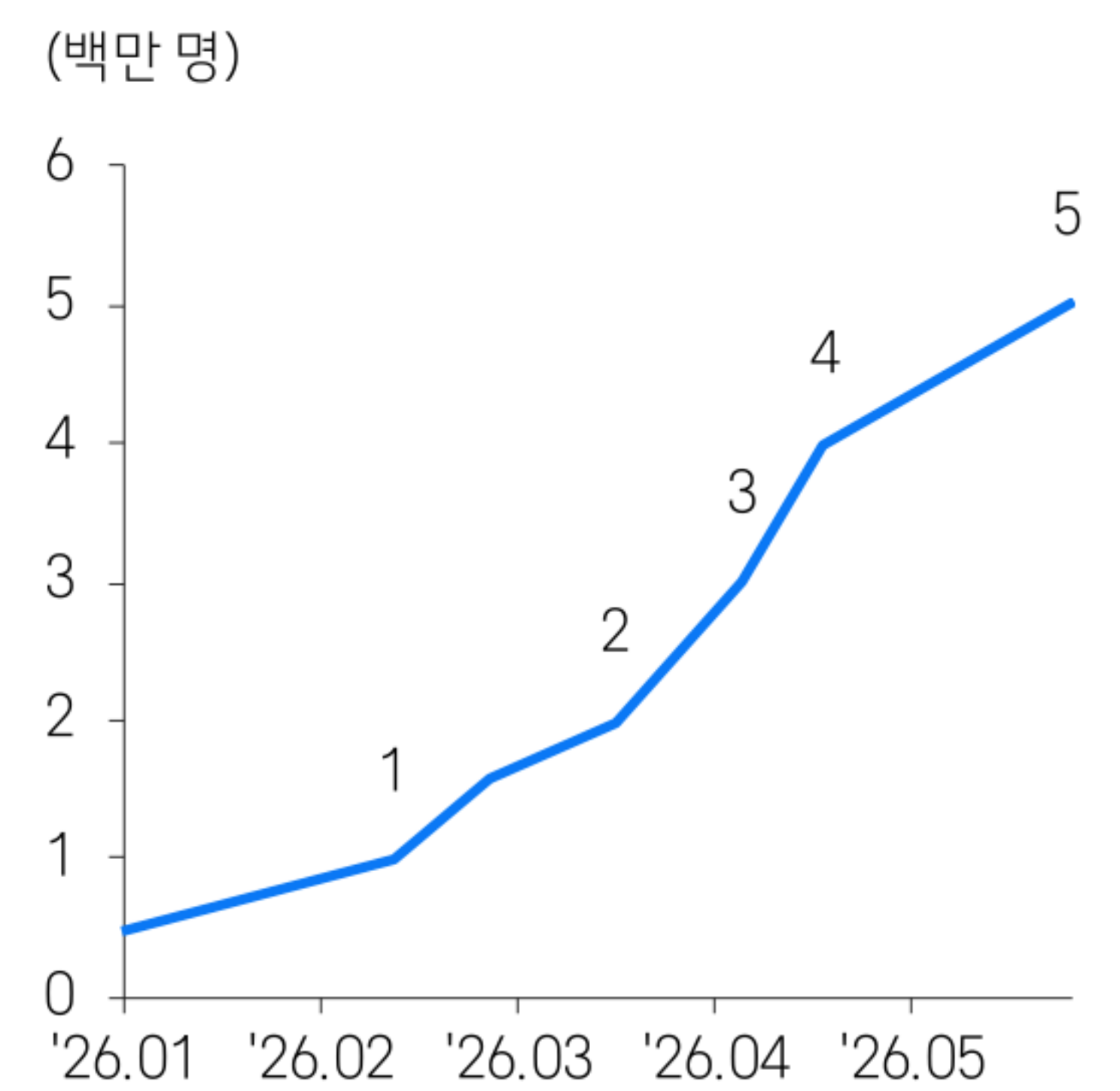
자료: OpenAI

Codex의 비개발자 확산



자료: OpenAI

Codex 주간 활성 유저 추이



자료: OpenAI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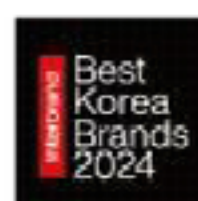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